

#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 국경을 넘는 여성들

소영현\*

차례

1. (탈)국경과 문학
2. 국경과 여성: 시-공간성의 재고
3. 국가/(민족)와 여성: 마이너리티의 역사 (재)기술
4. 자본과 여성: 초국가적 떠돌이들과 ‘대신 말하기’의 실천윤리

## 국문초록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는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이주와 정주를 그리는 이른바 ‘탈국경의 서사’가 대거 등장했다. ‘탈국경 서사’는 대문자 역사의 이름으로 세계를 이해해온 방식이 권위를 잃어버린 상황과, 전지구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변화 국면을 징후적으로 포착한 문학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여성들에 관한 서사는 문학장 내에서 국경/탈국경을 둘러싼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문학의 새로운 비판적 사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과 타자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간의 ‘국경을 넘는 여성들’에 관한 서사는 고국을 떠나는 여성들을 과거형의 인물로(신경숙, 김탁환), 북한을 포함한 제3세계형 빈민국의 일원(강영숙, 황석영)으로 복원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월경하는 여성들을 시간적으로 과거화하고 공간적으로 외부화하는 복원 방식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재현 문제에 주목하여 그간의 ‘탈국경 서사’를 메타적으로 재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다층의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억압 구조 속에서 국경 바깥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서사화가 과연 가능하며 또 타당한가를 질문해보았다.

핵심어 :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민족, 국가, 여성, 자본, 국경, 탈국경, 이주, 노동, 시-공간성

확실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공적 의제에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진실로 중요한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든다. 침묵은 인간의 고통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결국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은 운명과 종착지, 표류와 여행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 Zygmunt Bauman

## 1. (탈)국경과 문학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이주와 정주를 그리는 이른바 ‘탈국경 서사’<sup>1)</sup>의 등장은 200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이 확보한 특유의 영역이다. 한국문학에서 고국을 떠났던(/떠나야 했던) 여성들의 등장은 대문자 역사의 이름으로 세계를 이해해온 방식이 권위를 잃어버린 상황을, 전지구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변화 국면을 징후적으로 포착한 문학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조선 궁녀의 신분으로 프랑스 공사를 따라 고국을 떠났던 ‘리심’(김탁환, 『리심』)과 ‘리진’(신경숙, 『리진』), 국경과 국경 사이에서 난민으로 떠돌아야 했던 ‘리나’(강영숙, 『리나』)와

---

1)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김탁환, 『리심』 상·중·하, 민음사, 2006.; 신경숙, 『리진』 1·2, 문학동네, 2007.;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 2006.;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바리’(황석영, 『바리데기』)에 관한 소설이 공교롭게도 여성 주인공의 이름을 표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닌데, 이 소설들은 지상 위에 확정된 국경과 수많은 비가시적 경계를 넘어야 하는 여성들의 이동 경로를 뒤쫓고 있으며 여성 주인공의 세속화된 전기 형식을 취하면서 결코 귀환할 수 없는 그녀들의 고향 상실의 여정을 보여준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민족과 국가, 자본과 노동의 카테고리 안에 놓여 있는 국경을 넘는 그녀들의 여정[travel/displacement]은 근대의 핵심 키워드들과의 상관성 속에서 종족과 젠더 그리고 계급의 분할선을 가로지르는 모더니티의 야누스적 이중성을 폭로한다.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지구화 시대가 추동하는 전지구적 자본의 흐름과 노동 조건의 재편성이 국민국가를 광범위한 이주와 정주의 장으로 변환시키고 있다.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을 통한 국경 넘기의 일상화는 디아스포라 자체가 젠더화되는 경향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주 여성을 둘러싼 오늘날의 상황은 ‘이주의 여성화’로 명명되면서 지구화 시대의 여성 이주가 세기 전환기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리되고 있다. 지구화 시대의 여성은 국민적 정체성과 글로벌 시민 정체성의 모순과 갈등의 참조점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국민국가와 법의 경계, 젠더 배분의 견고한 안정성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그리하여 미디어의 관심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이주에서 야기된 피난민, 추방자, 망명자, 이주자, 불법 체류자를 ‘지구화의 쓰레기’로 명명하는 것에, 지구적 차원에서 만연해 있는 사회적 잉여가 촉발한 공포와 불안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2) 김은실,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19,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2.; 김은실·민가영, 『조선족 사회의 위기 담론과 여성의 이중 경험 간의 성별 정치학』, 『여성학논집』 23(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6.;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사회』 70,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양정혜,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등 참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남성 주체와 국민국가의 손상된 권위와 유동적인 경계를 다시 확립하는 작업에 쫓려 있다고 해야 한다.<sup>3)</sup>

그런데 국경을 넘는 여성들에 관한 서사와 국경을 넘는 여성이 범람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겹쳐 놓고 보면 흥미롭게도 서사화된 그녀들과 현실의 그녀들 사이에서 기이한 분절의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주를 둘러싼 대단위의 변화 속에서는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이곳의 여성들이 증발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고국을 떠나는 여성들을 과거형의 인물로(‘리심’과 ‘리진’), 북한을 포함한 제3세계형 빈민국의 일원(‘리나’와 ‘바리’)으로 복원하는<sup>4)</sup> 방식으로는 가령,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떠나는 이주 여성 노동자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국경을 넘는 여성들과 함께,<sup>5)</sup> 한국에 공존하는, 양질의 자식 교육을 위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해줄 개인과 가족 단위의 안위를 위해 이 땅을 떠나고 있는 이질적인 이주 여성들, 이른바 중간-계층 이주자들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sup>6)</sup> 오늘날의 이주 여성을 둘러싼 복잡한 정황에 대한 전체적 조망은 정치적

3) Zygmunt Bauman, 정일준 옮김,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111~119쪽.

4) 물론 국경을 넘는 여성들을 시간적으로 과거화하고 공간적으로 외부화하는 방식의 등장은 2000년대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역사소설 붐과 무관하지 않다. 가령, 김훈의 『남한산성』(학고재, 2007)이나 김경욱의 『천년의 왕국』(문학과지성사, 2007)과 같은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주요인물이 과거적 존재이거나 타국에서 온 이방인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들은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니면서도 남성성이 극히 약화된 존재들로 복원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탈국경 서사와 역사소설이 공히 거대서사가 배제했거나 누락한 존재들을 복원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5) 최근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논의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다문화 담론의 부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문화 담론을 둘러싼 논의는 김남국,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경제와사회』 80, 한국산업사회학회, 2008. 참조.

6)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이주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공간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폭력적인 결혼/가족 제도와 가정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열망이 스며있기도 하다.

망명과 경제적 이주라는 관점 혹은 국민국가 단위, 남성/여성의 대립적 분할선만으로는 쉽게 파악되기 어렵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증발해버린 시공간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러나 한국문학이 이 땅의 월경하는 여성들과 그들을 움직이는 ‘다른’ 메커니즘을 포착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근대 초기나 한국전쟁 전후와 같은 시기에 이어 국경을 넘는 존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세기 전환기적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탈국경 서사들은,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서사가 발산하는 비판적 가능성, 즉 국경/탈국경을 둘러싼 사유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의미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월경하는 여성들을 부조하고 있는 그간의 서사화 방식은 ‘지금-여기’ 혹은 ‘지금-거기’라는 시공간성을 배제한 채로 월경하는 여성들을 시간적으로 과거화하고 공간적으로 외주화하는 하나의 경향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이 글에서는 당대적 의미를 소거하는 이러한 서사화 방식에 대한 메타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여성적 글쓰기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글쓰기를 말하고자 할 때 상기해야 할 지점들, 가령 여성주의적 시각이 내장한 정치성과 서사의 완결성이나 인물의 통합적인 아이덴티티를 전제하는 이른바 ‘가부장적 미학’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모순을 예민하게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sup>7)</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스피박(G. Spivak)이 마르크스(K. Marx)의 저작을 재독하면서 언급한 바, 모더니티 기획에서 배제된 마이너리티의 권리 즉 대표성과 재현의 논리에 내장되어 있는 불연속적 갈등의 지점들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 서,<sup>8)</sup> ‘탈국경 서사’가 이질적인 공간성을 점유하고 있는 ‘여성들’과 만나

7)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에 관한 글쓰기의 차이, 페미니즘적 정치성과 ‘보편적(/가부장적)’ 미학 사이의 근본적 모순에 대해서는 Toril Moi, 임옥희·이명희·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3장 참조.

8) Gayatri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Interpretation*

는 방식의 타당성과 한계 그리고 가능성을 면밀하게 재고해볼 것이다.

## 2. 국경과 여성: 시-공간성의 재고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서사는 그들의 여정이 보여주는 체류, 부재, 추방, 망명, 실종, 향수 등의 경험에 기반해서만 국경/탈국경에 대한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국경/탈국경에 대한 사유는 표층에서 이루어지는 그녀들의 여정과 떠나온 곳(the society of origin) 혹은 머무르는 곳(the society of arrival)과의 접면에서 발생하는 것이자 그런 경험의 이질적 층위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국경/탈국경으로 압축되는 경계에 대한 사유는 이주 여성 자체로부터 발원하지 않는다. 그녀들의 월경 행위가 떠나온 곳과 머무르는 곳에 있어왔던 정주자의 존재 방식과 경계의 안정성에 균열을 가한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경계에 대한 사유는 정주자들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여성 주인공의 여정을 중심으로 서사가 마련되었던 그간의 ‘탈국경의 서사’가 과연 국경/탈국경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이끌고 있었는가를 새삼 되물게 되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그녀들’을 ‘탈국경 서사’의 한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시선’ 자체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그녀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말하는자인 그들은 어디에 발 딛고 있는가. 월경하는 그녀들의 여정 자체가 아니라 누가 월경하는 그녀들을 호명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성 속에서 복원하는가를 섬세하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국경을 넘는 여성들에 대한 보다 온

---

*of Culture*,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p.271~313 참조.

당한 접근이 ‘재현하는’/‘재현되는’ 이질적 층위가 담지하고 있는 시공간성에 대한 재고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월경하는 여성들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는 여성들을 생물학적 실체의 영역에 가뉘버리는 순간, 월경하는 여성들에 대한 서사는 그녀들이 접하고 있는 이질적인 공간성과는 별개로 그녀들만의 수난 서사이자 통합적 여성 주체가 재구성하는 자기 서사로, 그리하여 그녀들의 여정은 여성 버전의 거꾸로 선 영웅 서사로 이해되는 데 그치게 될 것이다. 보다 견고해지고 매끄러워지는 일상의 틈새와 균열로 나타날 뿐인 문화적 접면들을 포착하기 위해 마이너리티 담론과의 접점을 마련할 필요는 여기서 생겨난다.

요컨대, 국경을 넘는 여성들은 근대적 시간의 발전 단계를 공간성 차원에서 경험한다. 이에 따라 ‘탈국경 서사’에 관한 한, 근대적 시간성의 구도 위에 모더니티의 공간적 절합 구도(가령, ‘글로벌한 것과 로컬한 것’이라는 구도)를 겹쳐두고 그녀들의 여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sup>9)</sup>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국경을 넘는 그녀들은 언제나 하나의 공간에서 튕겨져 나간 존재로 동시에 다른 공간에 흡수되어야 할 존재로 복원된다. 그러나 그녀들은 국경과 국경 사이의 빈 공간에 놓여 있기보다는 서로 이질적인 문화의 접촉면을 마련하고 있다.

혼종성 담론이 내장하는 위험성을 고려하는 세심한 작업이 되어야 할 터이지만<sup>10)</sup>, 그녀들은 문화적 관습이 충돌하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젖히

9) Caren Kaplan, *Questions of Travel*,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6, pp.143~146.

10) 혼종성 담론이 내장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Arif Dirlik, 황동연 옮김,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창비, 2005, 351~355쪽 참조. 아리프 디릭은 혼종성이 정체성의 사물화를 비판하는 개념임에도 정체성 개념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사물화를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추상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종성은 그 극복대상인 문화적 본질화와 역설적으로 재결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는 일상적 존재로서 되새겨질 필요가 있다. ‘미결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존재로서 그녀들이 과연 전복의 가능성까지를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sup>11)</sup> 그럼에도 그녀들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않는 ‘혼종적’ 혹은 ‘제3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 사실 자체가 좀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12)</sup> 국경을 넘는 여성들에 대한 서사를 정치경제적 층위와 함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하는 것은 월경하는 그녀들에 대한 온전한 복원을 지향하는 이러한 요청에 상응하는 것이다.

### 3. 국가(/민족)와 여성: 마이너리티의 역사 (재)기술

역사가 남긴 한 여성의 흔적을 복원하고자 한 김탁환의 『리심』과 신경숙의 『리진』은, 대상이 된 여성이 프랑스 초대 공사의 여자라는 신분으로 고국을 떠난 조선의 궁중 무희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국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서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복원된다 해도 유럽의 남성을 매혹시킨 동양적 섹슈얼리티의 한 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의 궁중 무희를 복원하는 이 소설들

---

그럼에도 그는 혼종성의 호소력을 정치적, 문화적 실체들과 사회적·문화적 분석의 범주들을 붕괴시킴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풀어놓는 점에서 찾는다.

11) Homi K. Bhabha,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6장 참조.

12) 문화연구자들 사이에서 호미 바바가 강조하는 혼종성 공간, 문화 충돌이 빚어내는 ‘in-between’ 혹은 ‘제 3의 공간’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화론의 추상화 경향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지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혼종적 혹은 제 3의 공간’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문화의 접면이 보여주는 자체의 이질성과 그 접면의 고정불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은 거대 서사의 소용돌이로 압축할 수 있는 모더니티의 폭력성을 반성하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으며, 대문자 역사의 문맥에서 흔적 없이 지워진 존재들을 호명하고 복원하며 재배치하는 작업의 산물이다.

충효와 정절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역사가 여성을 과도하게 배제하고 누락시켜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녀를 복원하는 작업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기존의 역사 기술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배제와 누락의 행간은 좀더 폭넓고 깊게 파헤쳐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리심』과 『리진』은 사라진 그녀의 흔적을 발굴하는 것이라기보다 창조하는 서사에 가깝다. 그리고 그 창조와 복원의 과정은 작가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여성을 재현하는 패턴화된 방식)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리심』의 ‘리심’에게 국경이 국가(/왕)에 종속된 여성의 자리에서 국가의 대리인으로 다시 속인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계기라면, 『리진』의 ‘리진’에게 국경을 넘는 과정들은 전근대적 계급사회의 일원에서 근대적 개인으로 재탄생하는 점진적 발전의 계단들이다. 김탁환의 그녀가 중심과 주변, 주체와 타자의 갈등을 매번 어느 한 쪽에서 서서 경험한다면, 신경숙의 그녀에게 국경 너머에서 온 남자, 국경을 넘으면서 만나는 문화와 자연은 모두 그녀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하는 성장의 계기로서 경험된다.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주체화하는 방식으로, 근대적 이성/감성의 계발을 통해 주체화하는 방식으로 ‘리심’과 ‘리진’은 각기 다른 주체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근대/여성을 복원하는 방식이 보여주는 이러한 차별적 지점은 작가의 생물학적 성차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역사를 기술하는 차이이자 여성을 복원하는 관점의 이질성이기도 할 것이다.<sup>13)</sup> 김탁환의 『리

13) ‘리진/리심’을 역사와 여성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논의로는, 김화영, 「리

심』이 남성들이 만들어낸 공적 서사, 대문자 역사에서 장식적 존재였던 여성이 결국 주변화되고 배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신경숙의 『리진』에서 여성은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역사적 장면들의 목격자로 격상되어 역사의 길목마다에서 존재감을 아로새긴다.

가령, 김탁환의 『리심』에서 ‘리심’의 가치는 ‘국가-만들기’를 위한 남성들의 이질적인 지향들(고종, 홍종우, 빅토르 콜랭 등)과 그것이 빚어낸 갈등의 장에서 부각되거나 무의미해진다. 흥정거리로서의 ‘리심’의 가치는 국왕의 여자였으며 외국 공사의 여자라는 그녀의 위상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며, 때문에 그녀의 존재론적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조선의 국왕과 프랑스 공사 양자에게서 흥정거리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지점에서이다. 물론 조선의 국왕과 프랑스 공사 등이 그녀를 도구화하는 이러한 행위는 ‘국익’의 이름으로 혹은 ‘국가-만들기’라는 대의로 합리화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심』에서 ‘리심’은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그녀를 납치한(/납치를 명령한) 조선의 국왕의 입을 통해, ‘처음부터 국왕의 소유였으며, 영국 공사에게 잠시 빌려 주었다가 다시 취하게 된’ 그런 존재로 복원된다. 김탁환이 복원하는 ‘리심’은 ‘조선’이 ‘제국’으로 거듭나는 자리에서 결국 망각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신경숙의 『리진』에서 왕비의 사랑을 받던 어린 ‘진’은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이 불타는 장면에서 느낀 두려움을 울음으로 터뜨리는데, 흥미롭게도 작가는 어린 소녀의 두려움을 “프랑스가 대혁명의 성과물인 미터법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고, 독일이 가스를 폭발시켜 에너지를 동력장치로 전달하는 내연기관이 등장하던 무렵”이나, “세계를 향해 이제 문을 연 조선”의 어지러운 역사적 상황과 병치시켜 보여준다.<sup>14)</sup> 『리진』은 이

진, 여자가 역사를 만나다, 『문학동네』 2007 가을호, 문학동네, 2007; 김성숙, 『풍경과 감정: 역사를 상상하는 두 개의 다른 시선』, 『비평문학』 30, 한국비평문학회, 2008 등.

14) 신경숙, 『리진』 1, 문학동네, 2007, 97쪽.

러한 방식으로 여성이 대문자 역사에서 지워졌으나 그럼에도 지워지지 않고 존재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린 소녀의 두려움은 불타는 교태전 앞에서 본 한 여인의 타오를 듯한 분노였으며, 여기서 역사는 분노를 도드라지게 해줄 배경화면처럼 끼워져 있을 뿐이다. 사실 『리진』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지워진 존재가 덧그려진 그림처럼 어색하게 병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과연 이것이 남성 중심의 역사, 대문자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들, 마이너리티의 작은 역사를 되살리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이는 사라진 존재들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신경숙식 역사 재기술의 한 방식일 것이 분명하다.

김탁환과 신경숙의 역사 기술은 왕의 여자로 돌아와야 하는 ‘리심’과 왕비의 딸로 돌아와야 하는 ‘리진’의 귀환만큼 매우 이질적인 지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리심/리진’은 서로 다른 방식을 거쳐 근대국가의 일원인 근대적 주체가 되는 길에 함께 놓여 있다. 전근대적 여성을 ‘성숙해가느’ 근대적 주체로 재현하는 이러한 방식은 마이너리티를 복원하는 매우 패턴화된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국경을 넘는 여성들, ‘리심/리진’은 국경을 건너면서 전근대에서 근대로 건너가려 하는, 아니 상이한 시간층 사이에 끼인 존재로 복원된다. 거꾸로 보자면 근대적 국민국가의 틀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은 결코 발견될 수도, 복원될 수도, 창조될 수도 없다고 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름을 묻지도 않았네요.”

“리심이에요.”

“리, 심! 무슨 뜻인가요?”

(…)

“꽃잎 떨어지니 세상이 모두 착해진다……. 이 말씀이지요? 하이쿠를 읽을 때처럼 올림이 큼니다.”

“조선에는 짧은 시가인 시조가 있지요.”

“시조! 그렇다면 가인(歌人)이신가요?”

나는 모랭 씨의 연이은 질문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그의 눈망울은 청국과 일본에 이어 조선을 배울 마음으로 가득했다.

“가인이기도 하고 무희이기도 하며 의술도 약간 배웠습니다.”

“진정 르네상스인이시로군요.”<sup>15)</sup>

프랑스 공사의 귀국길에 함께 프랑스에 간 ‘리심’은 문화적 소양이 있는 프랑스인 모랭(Morin)과 만난 자리에서 유창한 불어를 구사함으로써 프랑스인으로부터 총명한 “동양의 진주”라는 찬탄을 이끌어낸다. 서구의 시선은 ‘리심’을 야만국에서 온 ‘암컷 원숭이’로 분류하고 배제하며 비하하고 학대하지만, 학문과 예술 그리고 과학 영역을 두루 섭렵한 아름다운 여인 ‘리심’이 진정한 의미의 르네상스인임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은 서구의 시선이다.

작가는 시간적 격차로 경험되는 모더니티, 근대국가의 형성사를 병존 가능한 공간들로, 그 시공간이 허락한 시야의 폭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끼인 존재인 ‘리심’은 이방인의 위상이 마련해준 확장된 시야를 통해 서구에 대한 경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마련하게 되고, 짝패로서 동양/조선에 대한 인식에도 교정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약화된 수준이기는 하지만 ‘리진’ 역시 서구의 시선으로 서구의 모순을 들여다보고 틈새를 볼 수 있는 이방인으로서의 시야를 확보한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리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더니티의 발전사를 민족 국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여정’을 통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이중의

---

15) 김탁환, 『리심』 중, 민음사, 108~9쪽.

시아를 확보할 수 있는 존재로 복원하는 이러한 방식은 국경을 넘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된 ‘리심/리진’의 자리를 공정하게 그려주려는 두 작가의 배려이자 고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은 근대의 형성사를 반복하는 것이자 근대를 서구의 것으로 한정하는 방식에 매어 있다. 그녀들은 철저하게 민족이라는 틀 속에서 복원된다. ‘리심/리진’은 고국의 경계를 넘는 순간, ‘민족의 대표’가 되고 ‘문화의 전도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 다르지 않은 존재들인 것이다. 그녀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어정쩡한 위치를 서구에 ‘조선을 알리는 일’로 혹은 서구의 문물을 조선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실 그녀들의 복합적이고 유동하는 불안한 정체성이 무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부터이다. 민족의 대표이자 문화의 전도자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떠나온 곳과의 문화적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경을 넘는 경험이야기했을 문화적 차이의 지점들이 무시 혹은 소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피고 보면, 『리심』과 『리진』에서 ‘왜 그녀들의 죽음이 탄생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왜 그녀들이 향수에 시달리면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가, 왜 그녀들의 일생은 세속화된 영웅 서사의 형식을 취해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요컨대, ‘오리엔탈리즘과 토착주의’<sup>16)</sup> 사이에서 서성이는 복원하는 자들의 시선은 국경이 갈라놓은 근대국가의 분할선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흔들리는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 역사에서 지워진 자들 ‘리심/리진’에 대한 복원이 근대가 여성에게 할당

16) ‘오리엔탈리즘과 토착주의’는 레이 초우가 미국 문화연구 내에서 중국연구 분야의 지식인이 종종 의식하지 못한 채 내비치는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 활용하는 용어들이다. Rey Chow,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33쪽. 1, 5장 참조.

한 분할선 내부에 갇힌 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근대가 지워버린 흔적을 복원하는 역사 기술의 패턴화된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제3세계의 하위계층을 바라보는(/복원하는) 중간계층 남성 엘리트적 시선이 스며있다고 해야 한다.<sup>17)</sup>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현 방식은 작은 역사들의 복원을 통해 더 탄탄한 거대 서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역설적으로 기여하게 된다.<sup>18)</sup>

아무리 노력해도 소녀 결코 영국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머무르느니 차라리 돌아와서……. (…) 하나 넌 이미 잊힌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조선에서 네가 할 일은 없느니라. (…) 네가 변한 만큼 세상도 바뀌었음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자, 이제 묻고 싶구나. 영국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게 두려웠다면 한양에서 다시 조선 여인으로 살아갈 자신은 있느냐?<sup>19)</sup>

조선을 떠나기 전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리진에게는 고통이 밀려왔다. (…)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sup>20)</sup>

프랑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다 해도 조선에 돌아온 ‘홍종우’가 다시 구경거리가 되는 일은 없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 차이는 ‘파리에서도 늘 한복을 입고 다녔던’ 홍종우와 구라과 복색을 훑내내는

17) Aijaz Ahmad, *In Theory :Classes, Nations, Literatures*, London-New York: Verso, 1992, pp.190~197.

18) 따지고 보면 언제나 통합적으로 재현되는 ‘민족국가’의 이미지는 혼종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무수한 불균질성과 불확정성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식된 모더니티에 대한 인식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작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정할 수 없는 모더니티의 확정성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19) 김탁환, 『리심』 하, 14~15쪽.

20) 신경숙, 『리진』 2, 186쪽.

것이 아니라 ‘파리지앵을 이루는 구성요소들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리십/리진’의 차이만은 아니다. 이는 어쩌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존재방식을 요청하게 된다는 점, 국경이 대개 ‘국가(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계와 동일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마이너리티의 복원(/재현)이 그러한 방식으로 패턴화되어 있다는 점 즉 ‘국가(민족)’라는 경계와의 거리를 통해 복원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국가(민족)의 젠더화된 역할 배분으로 비판의 시선을 돌리지 않은 한, 국경을 넘으면서 근대의 시간적 발전 단계를 이질적 공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성들은 필경 그 어느 공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녀들은 사라진(/사라져야 하는) 존재들로 복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비판의 시선이 민족과 제국의 나르시시즘적 가치생산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작업, 말하자면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상정하는 근본 전제들로 향하지 않는다면, 레이 초우 식으로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담론에 의한 전략적 개입이 시도되지 않는다면,<sup>21)</sup>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서사는 결국 비판적 생산성의 층위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며 역설적으로 민족 담론에 기초한 거대 서사를 강화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4. 자본과 여성

##### : 초국가적 떠돌이들과 ‘대신 말하기’의 실천윤리

떠나온 곳에 대한 회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국경을 넘는 일이 결코 도착한 곳에 대한 정주 열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영숙

21) Rey Chow,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33쪽.

의 『리나』와 황석영의 『바리데기』가 그려내는 이주 여성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와는 다른 차원에 놓인다. 국경과 국경 사이에서 자본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그녀들은 떠난 곳과의 유전자적 동일성, 그곳을 향한 향수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sup>22)</sup> 그녀들을 월경하게 하는 것은 “세상 어느 도시에서나 벌어지는 일들”(『바리데기』, 255쪽),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이 만들어낸 난민적 삶 자체이다. 둘러보면 “아직도 세상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하루라도 맘 편히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고 있”(『바리데기』, 217쪽)다. 그러니 그녀들에게 국경 넘기가 일상화되어버렸다면 그 원인은 초국적 자본주의화와 경제적 양극화, 국제적 노동 분업이 야기한 국가 간의 위계화된 착취 구조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한다. 말하자면 “비서구적 지역성”<sup>23)</sup>을 드러내면서 “난민적 상황에 봉착해 있는 지구화된 노동의 전형”<sup>24)</sup>을 보여줌으로써 『리나』와 『바리데기』는 지역적 위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전지구적 노동 착취의 현장을 경쾌하게 비판하는 무국가적 반국가적 서사가 되는 것이다.

옛새 말하지 말라. 길구 슬그머니 가문 되는 거야. 세상에 네 처지가 이러루한데 누굴 믿겠나? 앞으로 아무두 믿지 말라. 이 고장두 인심이 점점 무서워지구 있단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까? 돈 때문이야, 알가서? 세상은 말이다, 전깃볼 훔해지구 돈 돌문 인정이 사라지게 돼 이서. 전에 조선하구 무역한다문서 돌아치던 젊은것덜 전부 부로카질해서 먹구산다.<sup>25)</sup>

22) ‘고향의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Chandra Talpade Mohanty, 문현아 옮김, 『경계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5, 1부 3장 참조.

23) 이해령, 「국경과 내면성」, 『문예중앙』 115,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240쪽.

24) 이명원, 「약속 없는 시대의 최자낙원-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하여」, 『문화과학』 52, 문화과학사, 2007, 306쪽.

25)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112~3쪽.



오늘의 이야기. 열여덟 살에 국경을 넘어 당신들의 나라에 들어와 스물네 살이 된 여자 이야기.

매일 사기 치고 매일 사기당하고 열여덟 살이지만 모르는 게 없어. (...) 국경을 넘자마자 브로커가 날 팔았어. 다 찌그러진 자동차 꺾대기조차 살 수 없는 돈에 팔았지. 날 산 남자는 도망가면 곤란하다며 매일매일 데리고 갔어. 난 한밤중에 팬티만 입고 도망쳤지. 그리고 수더분하게 생긴 여자를 만났어. 이 여자가 날 또 팔았지. 얼마나 받았을까. 난 자동차로 열 시간을 달려 도시로 팔려갔어. 도시에서 뭘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 너희 같은 것들 열 명을 모아서 팔아봤자 제대로 된 여자 하나 사기도 어려워. 우리를 늘 감시하던 남자가 말하곤 했지. 비리비리해진 나는 또 팔려갔어.

온통 눈과 발뽀인 강시골에 내렸어. 얼굴이 작고 마른 남자가 보라색 도라지꽃을 주며 날 맞았지. 농사일을 도울 여자가 필요했대. (...) 도시 사람들은 나에게 말해. 아주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그럼 난 대답하지. 난 이제 겨우 스물네 살인데 아주머니라니,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또 물어. 어디서 왔냐구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말투가 그 모양이냐구요? 그럼 난 수줍게 말하지. 국경이오.<sup>26)</sup>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빈곤(과 굶주림)이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했고, 초국적 자본화가 탈국가적 빈곤층을 만들어냈다. 그녀들은 대개 혼자 남겨진 채 국경을 떠돌게 되는데, 이는 그녀들이 극빈의 고통 속에서 부모와 가족조차 서로를 버리거나 팔아넘기는 일이 벌어지는 ‘탈인권’의 현장에 놓여 있다는 참혹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리나’가 천막의 여가수가 되어 노래 대신 읊조리는 이야기들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 생활의 터전에서 추방된 ‘리나’와 ‘바리’로 대표되는 존재들은 국경에 잇대어진 또 다른 국경을 넘으면서 경계 위를 맴돌게 되는 것이다. 생존 자체가 사회가 용인하는 법과 도덕의 금지선을 넘나드

26)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 93~4쪽.

는 것일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고국 혹은 머무르는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그녀들에게 탈출이란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혈액이 든 비닐 주머니”(『리나』, 117쪽)처럼 피할 수 없는 존재조건인 것이다.

물론 그렇게 떠밀려서 넘게 되는 국경이 그렇다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넘을 수 있는 지도 위의 굵은 선인 것만도 아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이루어진 목숨을 건 결단이라 해도 국경을 넘는 행위는 자본의 교환 원리 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우만(Zygmunt Bauman)이 생산자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구화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보여준 바 있듯이 전지구적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의 힘이라면 양극화를 촉진하는 것은 이동성과 그것의 소유 여부이다.<sup>27)</sup> 『리나』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가령 “너희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썩 임금을 주면서 지구상을 떠돌며 더 썩 돈으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구나”(『리나』, 234쪽)라는 다국적 시위대의 직설적 발언이나, 가스폭발 이후 무너진 공단지대를 복구하는 데 돈과 시간을 들이기보다 공단지대 자체를 포기하고 이윤 창출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발 빠른 다국적 기업의 행보, 혹은 끝없이 국경을 넘는다 해도 가스폭발 이후 폐허가 되어 산업폐기물이 버려지는 쓰레기처리장에서나 생존을 허용 받을 뿐이며 희생자를 위한 퍼포먼스에서조차 소외되는 떠돌이들의 난민적 상황을 통해, 자본의 공간 이동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이들이 밑바닥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는 순간, 그녀들의 몸 자체가 화폐가치로 환산되어버린다는

27) Zygmunt Bauman, 김동택 옮김,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한길사, 2003, 4, 5장 참조.

점에서, 탈국경이 일상화된 현실은 전지구적 자본주의화 혹은 초국적 자본의 승리를 입증해주는 전리품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리나’와 ‘바리’는 탈출하고 내쫓기며 팔리고 되-팔리는 과정에서 다국적이고 무국적인 자본의 속성을 문자 그대로 ‘몸소’ 체험하는 “밀려나서 방황하는”<sup>28)</sup> 존재라고 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자본의 흐름을 쫓는 그녀들의 여정은 노동 착취의 순환 고리를 맴도는 것일 뿐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물화된 섹슈얼리티 상품이 되는 과정이다. ‘리나’가 그러하고 『바리테기』에 등장하는 국경을 넘는 여성들이 그러하듯이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대개 매매춘과 돌봄노동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강영숙의 『리나』와 황석영의 『바리테기』에서 빈민 여성의 월경이 그녀들을 손쉽게 교환되고 폐기되며 그러한 방식으로 착취되는 성-상품으로 만드는 치절한 현실 논리는 매우 이질적인 방식으로 서사화되고 있다. 강영숙의 『리나』에서 ‘시랑’의 창녀촌이 악몽적 현실에 대한 암울한 메타포가 되고 있다면, 성적 착취의 참혹함을 환상적 서사로 처리하는 황석영의 『바리테기』에서 여성의 몸은 물화된 섹슈얼리티 자체가 되어 버린다.

강영숙의 『리나』에서 ‘클럽퍼즐’과 ‘시랑’의 창녀촌은 국경을 떠도는 여성들이 섹슈얼리티 상품이 되는 과정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헤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그녀들을 옥죄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팔리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끔찍한 경험은 떠밀리고 팔려 다니는 처지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클럽퍼즐’에서 그녀 ‘리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 주고 사람을 사는 일당 중의 한 명이 되어 있”(『리나』, 242쪽)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창녀촌 ‘시랑’이 어쩔 수 없는 창녀촌이면서도 ‘팔리고 되팔리는’ 여성들에게 ‘다른’ 창녀촌일

28) 소영현, 『포스트모던 서사시』, 『리나』 해설, 랜덤하우스, 359쪽.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길러지는 ‘딸이어서 버려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버려진’ 혹은 ‘부모에게 팔려 이곳저곳을 떠돌던’ 아이들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창녀촌 시렁이 창녀촌이 된 역사적 원인들-시렁이, 20세기 초에 철도 공사를 위해 타지로부터 잡역부로 이 지역으로 왔으나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남자들, 그들을 찾아 이곳에 왔던 여자들, 그 떠돌이들과 그(녀)들의 아이들로 구성된 공간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작가는 『리나』의 ‘시렁’을 통해 국경 너머로 밀려나서 성-상품으로 착취되는 하위계층-여성의 역사가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쉽사리 해소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떠돌이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하게 가능할지도 모를 공동체가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창녀촌의 윤리적 정당성이 모성적 행위로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서사화 방식이 억압과 착취의 하층을 역설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시렁의 창녀촌이 보여주는 대안적 공동체의 모색은 단지 모성의 회복이기보다 ‘마이너리티의 연대’를 연상시킨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서사화 방식을 통해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는 보다 복잡적이고 다면적인 양상으로 포착될 수 있는데, 공단지대와 폐쇄구역 사이에 존재하는 ‘클럽퍼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는 공간의 이질성과 복잡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이다. ‘클럽퍼즐’은 사실상 공단지대에 술과 마약을 제공하면서 공단 유지의 차질 없는 운용에 은밀하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클럽퍼즐’과 그곳에 연루되어 있는 (‘리나’를 포함한) 국경을 떠도는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클럽퍼즐’은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하층-여성-이주자들의 전형적인 일터이며, 무엇보다 그곳은 다국적 하위-노동자들의 억눌린 욕망의 출구이자 그런 의미에서 다국적 노동자들의 집결지일 수 있

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클럽퍼즐’은 공단지대와 폐쇄구역의 사이, 혹은 노동자와 부랑자의 사이 즉 경제자유구역 내의 이질적 공간들의 경계지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담배를 한 대씩 나누어 피우고 나서 선원들이 상 언니를 통로 쪽으로 끌고 나가 옷을 벗긴다. 상 언니가 허우적거리며 저항하자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후려치고 언니가 축 늘어진다. 다른 선원들이 내려온다. 그들은 서로 잡담을 하면서 발가벗긴 언니를 돌려세우기도 하고 눕히기도 하면서 여러 짓을 벌인다. 선원들이 완전히 실신해버린 상 언니를 내버려두고 사라진다.<sup>29)</sup>

여성이 밀항한다는 것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황석영의 『바리데기』는 화물선의 컨테이너 사이에서 인간 뱀이 되어 열흘 이상을 견디고 살아남는 것이 국경을 넘는 것이고, 그렇게 낯선 땅에 도착하는 순간 노예처럼 팔려갈 수밖에 없는 게 월경인 참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국경을 넘는 여성들을 전지구적 자본의 흐름 위에서 문제화하고 그녀들이 성과 노동 착취의 순환 고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서사화함으로써 『리나』와 함께 『바리데기』는 빈민-여성-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정직한 재현으로서의 가치를 담지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몸과 뉘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혹은 할머니와 칠성이의 인도 덕분에 “악머구리 벽작대구 악령사령이 날뛰는 지옥의 길”을 건너는 밀항의 시간이 “예전 아기가 아니라 큰 만신 바리가 되”는 “여행”(『바리데기』, 125쪽)이라는 식의 환상적 요소가 도입되는 순간, 동일한 맥락에서 ‘바리’가 영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제

29) 황석영, 『바리데기』, 140쪽.

대로 된 여권을 구해서 체류비자를 받는”(『바리데기』, 222쪽) 방식으로 런던에 정주하게 되는 순간,<sup>30)</sup> - 여기에는 다국적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아름다운 연대를 지향하는 작가의 과도한 열망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야겠지만, - 『바리데기』에는 유린된 몸에 대한 이야기와 치유하는(/되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커다란 분절점이 가로놓이게 된다. 『바리데기』는 참혹한 현실의 고발과 환상적 공동체의 열망이라는 이질적 지향의 거친 결합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밀항자는 그저 철저한 인신매매의 대상이자 유린된 몸이거나 치유될 수 있는(치유된, 치유할 수 있는) 영혼으로 분열된 채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할머니가 말해주던 그분이나 압들 할아버지가 말한 이분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난이나 차파티를 먹고 우리는 쌀밥을 먹는 차이가 있다고나 할까.<sup>31)</sup>

나는 무슬림에 대하여 거의 몰랐지만 알리와 가족들의 풍습이 특히 불편한 것은 없었다. 다만 나중에 라마단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 불편하기는 했다. 그러나 단식기간이 끝나면 다시 대하는 일상의 음식과 가족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sup>32)</sup>

바리에게 이른바 ‘나의 세계’가 된 런던의 빈민촌이 폐쇄적 공동체로

---

30) 국제결혼은 당사자들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적이나 시민권 등을 둘러싼 법률적 차원 혹은 국가제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바리데기』가 제도와 법률적 갈등의 측면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은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이주와 정주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추상적이고 낭만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야 한다.

31) 황석영, 『바리데기』, 225쪽.

32) 황석영, 『바리데기』, 226쪽.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 이 공동체의 폐쇄성은 외부로 열려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의 차이가 무화되면서 발생한다. 말하자면 할머니가 말해주었던 신(천지만물의 주관자)과 압둘 할아버지의 알라신이 그저 난과 쌀밥의 차이일 뿐으로 처리될 때, 인종적·종교적 차이가 소중한 ‘가족관계’의 이름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상처투성이 피부가 아니라 자족적인 공동체라는 말랑말랑한 속살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질 때, 마이내리티 공동체와 그 바깥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진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할 것도 없이, 국가와 공동체 내부의 인종적·종교적·신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런던에 이주한 빈민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안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믿는 식의 이러한 논리는 사실상 한국에 유입된 아시아권 이주 여성을 국적과 신분, 종교와 문화적 차이와 무관하게 통칭 ‘동남아 이주 노동자’로 명명할 수 있다는 신념만큼이나 비현실적이고 탈현실적인 것이라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서사화 방식은 여성-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이질적인 시선들로 뒤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빈민-이주-여성-노동자를 재현(/대변)하고자 하는 작가의 ‘계몽적-윤리적’ 당위의식에 기초한 시선과 그녀들을 피해자 담론에 가두어버리는 수용국의 미디어적 시선의 뒤얽힘 속에서 그녀들은 매우 단선적인 존재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sup>33)</sup> 당연하게도 떠밀려서 국경을 넘었으나 언제나 머무르는 곳에서 다

---

33)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 분석의 결과 - 불쌍하고 어린 부녀자로 보는 경향, 가족 해체시대에 새롭게 강화·유지·부활되는 ‘가족’을 강조하는 경향, 결혼이주여성을 타자화/유아화하는 경향, 고향과 전원의 푸근함과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경향, 아무것도 하지 않는(못하는) 정부와 고군분투하는 민간단체라는 대립 구도를 강조하는 경향,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보는 경향 - 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

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피해자 담론에 가두어버리면 그녀들의 몸을 관통하는 문화적 접면으로서의 이질성은 포착되기 어렵게 되며, 무엇보다 문화적 갈등과 일상의 충돌로 변주되어 등장하는 제국과 자본의 논리를 섬세하게 발견하기는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보자면, 두 소설은 국경을 넘는 여성들과 그녀들의 여정 자체에만 집중함으로써 이질적 공간이 담지하고 있는 차이의 국면들을 지워버리거나, 이질성과 만나는 일상의 불균질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빈민 여성들의 국경 넘기에 대한 참혹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강영숙의 『리나』와 황석영의 『바리데기』가 여행기처럼 읽힐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상기해야 할 사실은 초국적 자본주의화가 국경의 의미를 무화시키는 것도 심지어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국경을 넘는 여성들을 서사화하는 것 자체가 불러오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주 여성이 아니라 이주를 강제하는 자본과 국가의 논리, 그 노골적인 공모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서사화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서사화는 가능한 것일까. 이중 억압의 착취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의 존재증명은 진정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와 대신 말하는 이론가/(재현하는 혹은 대변하는 주체)라는 양분법이 불러온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지만,<sup>34)</sup> ‘대신 말하기’의 실천윤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2008, 51~52쪽.

34) 태혜숙, 『대항지구화와 여성주의 주체생산 모델』, 『대항지구화와 ‘아시아’ 여성주의』, 울력, 2008, 36쪽.



□ 참고문헌

- 김남국,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경제와사회』 80, 한국산업사회학회, 2008, 343~361쪽.
- 김은실,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19,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2, 29~46쪽.
- 김은실·민가영, 『조선족 사회의 위기 담론과 여성의 이중 경험 간의 성별 정치학』, 『여성학논집』 23(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6, 35~72쪽.
- 김정숙, 『풍경과 감정: 역사를 상상하는 두 개의 다른 시선』, 『비평문학』 30, 한국비평문학회, 2008, 231~248쪽.
-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사회』 70,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10~37쪽.
-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2008, 36~71쪽.
- 김화영, 『리진, 여자가 역사를 만나다』, 『문학동네』 2007 가을호, 문학동네, 2007, 167~194쪽.
-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황석영의 『심청』과 19세기 동아시아』, 『역사비평』 69, 역사비평사, 2004, 123~134쪽.
- 심진경·황석영, 『한국문학은 살아 있다』, 『창작과비평』 137, 창비, 2007, 239~278쪽.
- 양정혜,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47~77쪽.
- 이명원, 『약속 없는 시대의 최저낙원-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하여』, 『문화과학』 52, 문화과학사, 2007, 303~318쪽.
- 최종렬·최인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방법론적·윤리적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4, 살림, 2008, 147~205쪽.
-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 태혜숙, 『대항지구화와 ‘아시아’ 여성주의』, 울력, 2008, 36쪽.
- 태혜숙, 『미국문화 읽기와 ‘비판적’ 다인종 다문화 페미니즘』, 『여성학논집』

26(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9, 47~71쪽.

황훈성 엮음, 『미국 문화의 마이너리티 담론 읽기』,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Aijaz Ahmad, *In Theory : Classes, Nations, Literatures*, London-New York : Verso, 1992, pp.195~197.

Arif Dirlik(황동연 옮김),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창비, 2005, 351~355쪽.

Caren Kaplan, *Questions of Travel*,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6, pp. 143~146.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eds.), *Marxism and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p.271~313.

Chandra Talpade Mohanty(문현아 옮김), 『경계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5.

Homi K. Bhabha,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Rey Chow(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33쪽.

Toril Moi(임옥희·이명희·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Zygmunt Bauman(김동택 옮김),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한길사, 2003.

Zygmunt Bauman(정일준 옮김),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111~119쪽.

Abstract

Minority, Diaspora

So, Young-Hyun

‘Transborder narrative’ regarding the migration of women crossing the border has emerged in Korean literature. ‘Transborder narrative’ has shown the situation or symptomatic phase that we have lost the authority to understand the world in the name of ‘History’ and our world has been reorganized within the curren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nge. ‘Transborder narrative’ of women’s crossing the border also has shown a possibility of critical thinking of literature in terms of leading the meaningful discussion of border/transborder in the literary field. But even if that was showing the new thinking of ‘women’ and ‘others’, ‘transborder narrative’ showed a tendency that dealing with women who had to leave their hometowns(countries) as ‘the past time women’ and ‘the member of developing countries(/the third world nations)’ including North Korea. In other world, that narrative showed the way of reconstruction which pastized the women crossing the border temporally and externalized them spatially. Accordingly, I researched the ‘transborder narrative’ in the level of presentation/meta-presentation viewpoint, and asked/argued whether that kinds of narrative exists and it looked reasonable in multilayered oppressing structure.

**Key words** : minority, diaspora, nation, state, women, capital, border, transborder, migration, labor, spatiality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